



# 100일 나무심기 그림 수행이 땅이 알려준 공존 이유

### 갤러리바라 홍시아 개인전 '자연을 담은 마음 크로키' 지구별 모든 존재 나와 연결 "제주서 다시 바라보기 배워"

도로를 넓히겠다고 수십년 된 나무를 베어냈을 때 그는 그곳으로 향했다. 나무가 사라진 자리에서 그가 한 일은 그림으로 다시 나무를 심는 거였다. 잘린 나무의 고통에 반응하고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그는 100일 동안 기도하듯 그림으로 '나무심기'를 수행했다.

정을 보내고 있는 홍시아 작가. 제주에 머물며 마음을 비우고 명상하며 머릿 속에 떠오른 이미지들을 자유로이 하이안 종이 위에 풀어냈던 그가 이곳에서 만난 삶과 풍경을 담은 작품을 펼쳐놓는다. 제주에 등지를 뜬 김재영 소설가가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에 세운 갤러리 바라에서 이달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개인전을 연다. 제주는 작가에게 '다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준 공간이다. 그는 제주 땅에 사는 존재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나와 연결된 모든 존재와 만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작가는 "같이 살자"고 말한다. 스러진 나무의 고통이 그 나무에만 머물지 않듯 지구별에 사는 이들의 고통은 우리 모두와



홍시아의 '공존'.

이어져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연을 담은 마음 크로키"란 이름을 단 이번 전시엔 '공존', '제주, 바라보다' 연작 등이 나온다. 화면 안에 담긴 나무, 해와 달, 풀과 꽃, 새, 물고기, 오름 등은 또 하나의 우주다. 이 전시를 기획한 오현미 큐레이터는 홍시아의 그림 속 아래와 위를 연

결하는 가쁜 선에 주목했다. 그는 "이 선들을 볼 때마다 홍시아가 보내는 텔레파시가 느껴진다"며 그것을 "나는 당신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당신은 안녕하십니까?"란 작은 위로의 메시지로 읽었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5시. 문의 064)723-5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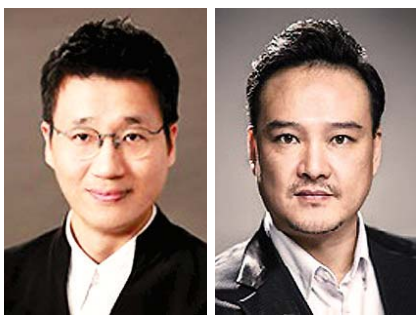
전선희기자

## 무반주합창으로 그리는 깊어가는 계절

### 서귀포합창단 정기공연 서귀포고는 로비 음악회

최상운 상임지휘자가 이끄는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이 '가을에 전하는 합창의 색채'를 주제로 빛깔있는 무대를 펼쳐놓는다. 이달 21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여는 예순네 번째 정기연주회다. 이날 공연은 무반주의 현대 합창.

한국 창작합창과 가요, 세계의 민속 합창, 흑인영가 등으로 짜여진다. 무반주 합창으로는 제이크 린스타드의 '너의 눈을 들어서', 유리스 칼슨스의 '로탈라' 등이 준비됐다. 한국합창과 가요 순서에는 김성태의 '꿈', 김준범 편곡 '더불어 숲', 재즈 스타일로 편곡한 '애야 시집가거라' 등을 들려준다. 그 뒤를 노르웨이 자장가, 슬로베니아 민요, 흑인영가 등이 잇는다.



지휘 최상운

테너 박신해

테너 박신해도 무대에 오른다. 윤학준의 '마중', 레하르의 '그대만이 나의 사랑', 뫼시니의 '춤' 등을 부를 예정이다.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박미향(플루트), 김성희 곡현중(타악기), 운영혜(콘트라베이스)가 협연한다. 피아노는 양선아 김희경씨가 맡는다.

공연에 앞서 서귀포예술의전당 로비에서는 임정희 교사가 지휘하는 서귀포고등학교(교장 정성중)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서귀포고 합창단은 올해 국립합창단이 주최한 제14회 전국고교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팀이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4)760-2494, 739-5272.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문화가 쫓겨

### 비아아트 이진아 개인전

이진아 작가가 '달을 수, 달을 수 없는'이란 이름으로 제주시 원도심 대동호텔 비아아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이 작가는 이번에 드로잉, 공예, 설치 등 장르의 경계를 오가며 사랑과 욕망이 실현되거나 좌절된 사연을 녹여냈다. 직접 짠 나무 상자, 옷을 통해 마침내 우리의 몸에 닿게 되는 동그런 곡자 등을 이용해 그 궤적을 상상하는 작품을 펼쳐놓았다. 그 여정에 제주가 고향인 아버지가 딱 한번 그에게 꺼내놓았던 4.3의 상처가 어른거린다. 12월 8일까지.

### 국수호디뎀무용단 공연

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프로그램으로 국수호디뎀무용단의 '코리아안드림 영고II'를 이달 22일 오후 7시 선보인다.

'코리아안드림 영고II'는 마한시대의 제천의식인 영고를 오늘날 시각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5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수호디뎀무용단은 1987년 창단 이래 2000회 넘게 국내외 공연을 이어왔다. 창작무용, 북춤, 무용극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유료.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 참고. 064)728-1509.

### '기억의 목소리' 토크콘서트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이달 23일 오후 3시 고현주의 '기억의 목소리' 사진전과 연계해 4.3평화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토크콘서트를 연다.

토크콘서트는 허영선 제주4.3연구 소장, 박재동 만화가,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김민웅 경희대 교수, 고현주 사진가가 패널로 참여한다. 진행은 송정희 (사)제주국제화센터 대표가 맡는다. 이야기에 나눔에 앞서 원형준 바이올리니스트와 서수민 첼리스트의 듀엣 공연이 진행된다. 문의 064)727-7790.

### 제주경우문예회 정기전

제주경우문예회전이 이달 23-28일 문예회관 3전시실에서 열린다.

제주경우문예회(회장 김정옥)는 퇴직 경찰관들이 문예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결성됐다. 지난해 창립전에 이어 두번 째로 마련되는 이번 전시에는 시, 서, 화, 사진, 서각과 화각 작품이 나온다. 강병룡 등 17명의 회원은 물론 현직 경찰관과 가족을 포함 23명이 참여했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3시에 열린다. 식전 축하 공연으로 기타 연주가 펼쳐진다. 문의 010-9229-7159.

## 시(詩)로 읽는 4·3 (35)

### 아, 셋바람이여-제주4·3항쟁 70주년에 부쳐 백기완

아, 그때 그 벅찬 해방의 감격 이 막 밝고 맑은 희망으로 나부끼던 싱그러운 섬마을마다 느닷없이 불을 썬지르고 타다당 집중사격으로 쓰러진 사람, 사람들 자지러지던 어린것은 시끄럽다고 싸버리고 웬짓이나 이놈들아, 웬짓이나 이놈들아 울부짖던 어머니는 첩자라고 갈겨버리고 그 살육 그 끔찍한 범죄가 질서가 되고 통곡마저 반역이 되던 세월 죽고 나서도 죽지 못한 원한이 마치 깔깔한 모래밭에 떠밀린 미

역조가리마냥 몸부림 쳐 일으킨 셋바람이여 이제는 몰아쳐 이제는 몰아쳐 저 반역의 역사를 발각 뒤집어엮어라 오늘날 흰구름 이고 껌뻑이는 한라야 그때 그 찢겨진 참해방의 깃발 하늘 높이 하늘 높이 나무끼시라 그날 그 피눈물의 싸움은 패배한 게 아니다 저만치 앞서가는 인류의 영원한 걸라잡이라 아, 천년만년 한결같이 변역의 셋바람이여 이어차 쳐라쳐라 이어차 철쳐라 이어-차 이어-차 이어-차 이어-차 이어-차 이어-차

백기완(白基玩)은 백범(白帆) 김구(金九) 선생과도 깊은 인연이 있다. 백범이 치하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탈옥했었는데, 백기완의 조부 백대주가 자신의 집으로 피신시키고 돌봐주었다. 백기완은 해방 후 서울로 가서 백범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백범을 따르게 된다. 백범 또한 그를 좋아해서 그가 즐겨 읊던 한시 '달설야중거(踏雪野中去)'를 휘호로 써주었다. 백기완은 1960년대 한일협정반대운동을 시작으로, 3선개헌 반대와 유신 철폐 등 민주화운동에 투신했으며, 1974년 유신헌법철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여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75년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되었다. 현재 통일문제연구소 소

장을 역임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노랫가사의 원작의 시 '뫼비나리'를 짓기도 했다. "미군이 제주도를 거대한 킬링필드(killing field)로 바꾸어 놓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언급한 사회학자 조지 카치아피카(George Katsiaficas)의 말은 정당하다. 4·3당시 미군의 개입에 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서울 프레스센터 비상시국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백기완은 "정부는 행정권한을 남용해 강경마를 일대에 '제2의 4·3사건'을 연상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백기완은 "남북 지도자가 한반도의 허리를 자른 미국에 사과를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 제주 본풀이 바탕 창작마당굿 '동이풀이'

제주전통문화연구소(이사장 문무병)와 제주철머리당영등굿보존회(회장 김윤수)가 이달 23일 오후 7시, 24일 오후 5시 제주시 사라봉 자락의 철머리당영등굿전수관 강당에서 '동이풀이'를 선보인다. '동이풀이'는 제주 무속에서 전승되는 고전적 하루바님과 양씨아미본풀이 등 조상신 본풀이에서 소재

를 따왔다. 태평양 전쟁, 제주4·3 등 근현대사의 질곡을 겪고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해 정신 이상이 된 주인공 양씨할망은 '살릴 도리를 내우'는 과정을 담는다. 초감제, 세도림, 질점굿, 동이풀이 등 제주 굿 순서처럼 구성이 짜여졌다. 문무병 이사장이 대본을 썼고 윤미란 놀이패 한라산 대표가 연출했다. 전선희기자

사람으로 키워낸 **애월 특산물**

# 2019 애월읍 농·수·축 박람회

11.22.금 ~ 11.24.일 10:00~17:00 ▶ 새별오름 광장

| 주최 | 제주시 애월읍·애월읍주민자치위원회 | 주관 | 애월읍 농·수·축 박람회 추진위원회

### 프로그램 일정

날짜	시간	내용
첫째 날 11.22.금	10:00-12:30	부스소개 애월 옥션을 잡아라! 애월 특산물 만원의 행복
	12:30-13:00	축하공연1. 해나가수 김은경
	13:00-14:00	축하공연2. 결혼패물메 길트기
	13:30-14:00	축하공연3. 제주 공감콘서트
	14:00-15:00	개막식 및 공식행사
	15:00-16:00	애월 옥션을 잡아라!
	16:00-17:00	애월 특산물 만원의 행복
둘째 날 11.23.토	10:00-11:30	부스소개 애월 옥션을 잡아라! 농산물 무게 맞추기
	11:30-13:00	축하공연1. 조미미 국제가요제 홍보단
	13:00-14:00	애월 옥션을 잡아라! 애월 특산물 만원의 행복
셋째 날 11.24.일	14:00-14:30	축하공연1. 애월합창단
	14:30-16:00	축하공연2. 조미미 국제가요제 홍보단

**오시는 길** | 새별오름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신59-8

← 제주시 | 평화로 | 서귀포시 →

아름 | 새별오름 | 만민

**버스 이용 시**

금행버스 181, 182, 151, 152 공항리무진 600, 800  
일반간선 251, 252, 253, 254, 255, 282

**자가용 및 택시 이용 시**

공항에서 평화로 경유 약 22분(21km) 중문에서 평화로 경유 약 18분(18km)  
서귀포에서 평화로 경유 약 27분(26km)

문의 애월읍 ☎ 064) 728-8818 www.jeju.go.kr/town/aewol.do